

박상천 굳히기나, 장상 뒤집기나

■민주全大 D-1

민주당의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표 경선 판세는 박상천 전 대표의 우세 속에 장상 전 대표가 추격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다.

특히, 범여권 등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대표 경선 결과가 추후 정계 개편은 물론 대선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.

1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민주당 대표 경선 판세는 박상천 전 대표의 우세 국면 속에 장상 전 대표 등 후발주자들이 막판 역전을 노리고 있다.

박 전 대표는 경륜과 정치력을 앞세워 향후 통합국면에서 민주당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, 대의원들의 바닥 표심을 장악하고 있다는 평가다.

박 전 대표 측에서는 적어도

朴 “경륜·정치력 앞서 20% 이상 승리”

張 “개혁성향 호남표 결집, 막판 역전 가능”

10% 이상 많게는 20% 이상의 차이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.

반면, 장 전 대표 측은 주말을 전후해 혁명의원들이 밝은 뒤에서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며 ‘막판 뒤집기’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. 특히, 개혁 성향의 호남지역 대의원 표가 점차 결집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역전은 이미 시작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.

장상 전 대표와 박상천 전 대표 측의 비방전도 치열해지고 있다.

장상 전 대표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“구시대적 인물과 함께 과거의 혼란 속으로 되돌아가선 안된다”고 박 전 대표를 비난하는 한편

“김효석, 신중식, 최인기, 이낙연,

이상열, 채일병 의원이 지지선언을 하면서 종판 판세가 장상 후보로 기울었다”고 주장했다.

이에 맞서 박 전 대표측은 “리더쉽의 한계를 보였던 장 전 대표가 합법적인 TV토론마저 거부하더니 당 갈등과 내분을 격화시키는 등 막판 혼탁선거를 주도하고 있다”고 비난했다.

한편, 열린우리당과 우리당 탈당 그룹은 벌써 ‘민주당 4·3 전대 이후’를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.

민주당 대표 경선 초반만해도 범여권에서는 자기 주장을 강하고 민주당 중심의 통합을 외치는 박 전 대표 보다는 정계개편에 유연한 입장을 보여왔던 장상 전 대표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.

그러나 민주당 대표 경선 판세가 박 전 대표 우세 국면으로 흐르자 범여권에서는 어느 누구와도 대화 할 수 있다는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.

당장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과 탈당과 일부 의원들이 대표 경선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는 박상천 전 대표와 물밀 접촉에 나섰다는 설이 돌고 있다.

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전 대표와 탈당과 의원들이 정계개편의 밀그림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.

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4·3 전당대회가 끝나면 민주당의 새 대표와 범여권 인사들이 내부적인 접촉을 통해 정계개편에 대한 합의를 통해 오는 4·25 재보궐 선거 이후 신당 창당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/임동욱 기자 tuim@kwangju.co.kr

“연설회의로 후보단일화 먼저”

■DJ, 범여권 통합 입장 밝혀

“열린우리당 해체는 자업자득”



김대중 전 대통령이 범여권 통합과 관련, 연선회 등의 방식으로 후보를 단일화 해 연합방식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른 뒤 단일 정당을 만드는 ‘선 후보 단일화 후 통합 방식’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.

김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4·25 재보궐 선거 이후 대통합신당 창당을 추진한다는 범여권의 구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.

김 전 대통령은 1일 CBS TV 개국 5주년 기념 특별대담에서 “지금 당장에 단일 정당으로 하려면 지구당 문제도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”며 “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세워 선거를 치른 뒤 정권교체에 성공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단일 당 만들면 되지 않겠냐”고 말했다.

대선 후보를 선정하는 방법과 관련, 김 전 대통령은 대선에 출마하고 싶은 사람들이 ‘커미티(committee)’같은 것을 만들어 여론조사 등으로 낮은 사람들을 탈락시키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또한, 열린우리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.

김대중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합니다.”라고 평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“한나라당이 최근 대북정책을 변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